

한국 종교계 생태 NGO의 전개와 성격

—저항과 생태 교육을 통한 사회참여*—

유 기 뽐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요 약〉

본 이 논문은 한국사회에서 종교 영역이 국가 영역에 개입하는 통로로서 종교계 생태 NGO의 등장 맥락과 시기별 역할 변화, 사회참여 방식 및 종단과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종교계 생태 NGO들은 국가와 종단을 동시에 견제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종교계 생태 NGO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종단 내부로 전달하고 시정하는 역할과 동시에 해당 종교인들이 국가의 정치에 개입하고 목소리를 내는 창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종교계 생태 NGO들은 다양한 저항운동 뿐 아니라 생태 교육 활동을 중심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참여 활동들은 종교계도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기능한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를 형성하고 있다. 나아가 종교계 생태 NGO를 중심으로 종단간 연대와 협력,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핵심 주제어: 종교계 생태 NGO, 종교생태운동, 종교와 사회참여, 시민사회와 종교, 종교와 정치, 생태영성, 생태 교육

* 이 논문은 2007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과제번호 KRF-2007-321-A00066).

I. 서 론

NGO 명칭의 기원은 1945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51개국 대표들이 모여 유엔(United Nations) 창설을 논의할 때, 정부대표들이 모인 정부간조직(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에 대비되는 명칭으로 비정부조직(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이란 개념이 처음 사용된 이래¹⁾ NGO라는 용어는 점차 널리 사용되게 되었다. 비록 국가와 시대에 따라 NGO의 개념규정은 다르게 나타나지만, 일반적으로 NGO는 시민 권리를 옹호하고, 국가권력과 국가이기주의, 나아가 대기업과 다국적기업의 무분별한 활동을 견제하면서, 사회적 연대를 통해 공공선의 증대에 노력하는 단체를 의미한다.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미 사용되고 있던 ‘시민단체’의 개념과 NGO의 개념이 거의 동일시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흔히 종교는 정치적인 영역에서 분리되어서 사적인 영역, 특히 정신적인 영역을 담당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실상은 종교계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수많은 NGO들이 결성되어서 다양한 방식으로 정치에 개입해왔으며, 나아가 종단 내부의 비합리적인 측면을 개혁하도록 촉구해왔다. 종교계 NGO는 일반 시민사회운동과 종교계 내부를 연결해주는 통로 역할을 해왔던 것이다.

본고에서는 종교계 NGO 가운데서도, 특히 최근 한국 종교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생태 NGO의 수립과 시대적 전개 과정,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가와 종단을 견제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 종교계 생태 NGO의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종교계 생태 NGO란 종단의 중앙조직에 종속되어 있지 않고, 종단 내부자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결성되었으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의 구현을 지향하는 단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이를 위해 II장에서는 종교계 생태 NGO의 시대적 전개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III장에서는 종교계 생태 NGO의 성격을 대정부 활동과 종단과의 역학 관계를 중심으로 각각 분석할 것이다.

II. 종교계 생태 NGO의 시대적 전개

종교계 생태 NGO가 형성되고 전개되는 과정은 한국사회에서 민주화의 양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 장에서는 한국 사회운동의 큰 흐름 속에서 종교계 생태 NGO의 활동 양상이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박상필, 『NGO학 강의』(서울: 아르케, 2006), 141쪽.

1. 유신체제하의 종교적 재야운동: ~1970년대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없이 독재 정권에 의해 권력과 폭력이 행사되는 시기에는 모든 종류의 자발적 사회운동은 크게 제약받을 수밖에 없다. 한국사회에서 해방 이후 1970년대까지는 제도정치와 강력한 억압구조로 사회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어려웠다. 해방 후에 미군정과 한국전쟁, 분단을 겪으면서 제도정치는 다른 이념적 지향을 철저히 통제하는 이데올로기로 반공이념을 전국민에게 주입하였고, 나아가 1970년대에는 유신체제하에서 사회적으로 엄중한 감시 체제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시민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반대의견을 표시하는 저항과 의사 표현의 자유는 차단되었다. 이때 조금이나마 저항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 이른바 ‘재야’의 활동이었다.²⁾

유의할 점은, 이때 재야의 민주화운동은 종종 공식적으로 종교의 명칭을 앞세우곤 했다는 점이다. 유신체제 하에서 사회운동은 극도로 억압되고 있었고, 합법적인 운동을 위해 교회 등 종교를 내세우며 만들어진 조직들은 당시 민주화운동의 중요한 활동공간이 되었다. 이러한 운동 단체들로는 ‘민주수호기독교청년협의회’, ‘가톨릭노동청년회’, ‘산업선교회’, ‘크리스천 아카데미’, ‘가톨릭농민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등이 있다.³⁾ 이러한 단체들은 대부분 종교의 보호막 아래에서 독재정권이나 대기업의 수탈에 대한 저항을 시도했다.

이 가운데 종교계 생태 NGO의 맹아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가톨릭농민회의 활동이다. 가톨릭농민회는 1970년대에 종교의 보호막 아래에 농민의 권익 수호를 위해 투쟁했던 대표적인 농민운동 단체였다. 가톨릭농민회는 정부 농업정책의 비합리적인 측면들을 강력히 반대하고 농민권리를 되찾으려는 목적에서 출발하였지만, 이후 우리쌀과 우리밀 살리기 운동을, 나아가 생협과 유기농 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한국 사회에서는 외국 자본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급속한 경제개발이 추진되면서 그 과정에서 노동자, 농민 등이 소외되고 있었다.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는 농민의 대대적 이농현상이 나타나는데 1960년대에는 농가인구 250만 명이 농업에서 이탈하였다고 한다. 또한 경제개발 계획에서 소외된 농민들의 소득은 도시가구의 소득에 비해 뒤쳐져갔고, 부채농가의 비율은 1971년 당시 전체농가의 75.7%로 확대되었다.⁴⁾

이처럼 농민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일찍이 1964년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는 산하에 농촌 청년부를 결성하였고, 1966년 10월 17일에는 한국가톨릭농촌청년회를 조직하였다.⁵⁾

2) 조대엽은 1970년대 재야 운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한국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출현한 ‘재야’는 제도정치와 바깥에 위치하며 극도로 제약된 운동정치의 공간에서 저항활동을 추구했던 민주화운동의 네트워크라고 말할 수 있다.” 조대엽, 『한국의 사회운동과 NGO-새로운 운동주기의 도래』(서울: 아르케, 2007), 131쪽.

3) 위의 책, 138쪽.

4)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가톨릭농민회 30년사』(생, 1999), 15-16쪽.

5) 가톨릭노동청년회 활동을 하던 도시노동자들은 상당수가 농촌출신으로서 어려운 농촌살림을 견디지 못

이 모임은 처음에는 가톨릭 농촌청년 중심으로 모범적인 농촌청년, 모범적인 농사활동을 목표로 하는 농촌계몽운동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⁶⁾ 그러나 점차 자본주의 체제하의 농민문제를 해소하기에는 농촌계몽운동의 한계가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게 되었다. 마침내 1971년 조직강화위원회에서 농민권익옹호와 사회정의실현을 활동 목표로 설정하고 1972년에 한국가톨릭농민회로 명칭을 바꾼 후 본격적인 실천 활동을 전개하였다.

농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대중 조직이 없던 1970년대에 가톨릭농민회의 창립과 활동은 독보적이었다. 가톨릭농민회는 1974년에 농지임대차관계조사,⁷⁾ 전국비료 수급실태 긴급조사 활동을 벌였고, 1975년에는 쌀생산비 조사활동을 벌이는 등, 농민의 권익 수호를 위한 기본적인 조사활동을 벌였다. 또한 1976년에서 1978년까지 농협이 고구마 계약수매를 이행하지 않아 발단된 함평고구마 사건에 대해 이를 규탄하는 기도회와 단식농성을 벌이고 전액보상을 이끌어낸 일, 1979년 영양 청기 감자피해보상운동을 벌여 전액보상을 이끌어낸 일 등 농민권익수호를 위한 구체적인 운동을 사안별로 벌여나갔다. 나아가 1977년에 농협 자금 운용의 투명성 여부를 조사하는 등 농협문제 조사보고서를 발간하고, 농협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였다.⁸⁾

이처럼 1970년대에 가톨릭농민회의 활동은 소외된 농민의 권익 수호를 목적으로 하였다. 그리고 정부가 농민의 빈곤원인을 정부정책에서 찾지 않고 그 책임을 농민에게 떠넘기는 태도를 강력히 비판하면서, 농업과 관련된 국가 정책의 시정, 농협의 민주화를 요구하였다. 이 시기에 가톨릭농민회는 종교의 보호막 아래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농민운동 세력이 집결할 수 있는 창구의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가톨릭농민회의 활동은 당시 한국 사회의 민주화운동과 맥이 닿아 있었다. 종교를 앞세운 단체명은 공권력으로부터 보호막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톨릭농민회는 유신정권의 탄압을 피하기 어려웠다.⁹⁾

해 도시로 온 이농자들이었으며, 가톨릭노동청년회에서는 점차 노동문제는 농민문제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의식이 뚜렷하게 되었다. 위의 책, 16-17쪽.

6) 정호경, 『한국가톨릭농민회—그 역사와 이념』, 『종교신학연구』 제1집(서울: 서강대 종교신학연구소, 1988), 237쪽.

7) 전국 9개 시도 62개 군 70개 부락 총 4,554농가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조사 결과, 소작농은 전 농가의 29.1%, 소작면적은 전체 경작 면적의 16.4%, 소작료는 소작농의 79.4%가 생산량의 50%를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가톨릭농민회, 앞의 책, 41쪽.

8) 위의 책, 31-87쪽.

9) 1979년에는 안동교구청에 사복경찰이 난입하여 농민회를 지도하던 정호경 신부를 강제 연행하였고, 이후 김수환 추기경을 비롯한 사제들과 천주교신자들이 모여서 구속자 석방과 유신철폐를 외치는 촛불가두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다. 위의 책, 82-83쪽.

2. 국가 정책에 대한 저항의 심화: 1980년~1987년 이전

1980년대에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이전 시기에 비해 학생운동의 활성화에 힘입어 널리 확산되었다.¹⁰⁾ 한국사회의 저항적 생태환경운동 역시 1980년대에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 시기 대표적인 종교계 생태 NGO로는 한국공해문제연구소를 들 수 있으며, 가톨릭농민회의 활동도 활발히 이어졌다.

우선, 1980년대에 가장 두드러진 활동을 펼친 한국공해문제연구소의 활동을 살펴보자.¹¹⁾ 산업화가 계속되면서 크고 작은 생태계 파괴 사건들을 통해 생태 문제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확산되었는데, 1980년대에 그것은 ‘공해’라는 개념으로 집중되었다. 공해라는 개념을 통해 생태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단체가 한국공해문제연구소이다.

한국공해문제연구소는 교회차원에서 민주화운동을 지원하던 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회의 지원 하에 창립되었다.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한국공해문제연구소는 비록 명칭에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회를 모태로 기독교 성직자들을 중심으로 성립되었을 뿐 아니라, 정관에서도 종교적인 색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¹²⁾

1987년까지 사실상 정치적 기회구조는 폐쇄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국공해문제연구소의 운동은 제도 밖에서 매우 전투적으로 대기업과 정부에 저항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당시 사회선교협의회 총무였던 권호경 목사의 다음과 같은 증언에서 연구소 설립 당시의 분위기를 살펴볼 수 있다.

그때는 광주사건 직후라 세 사람만 모여도 범법자로 몰리는 살벌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 환경문제를 교회 안에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 운동이란 표현을 쓸 수 없어서 ‘연구소’라고 했다 (...) 그때 확실히 두 가지 동기였다. 하나는 지역사회 주민조직의 일환으로 환경문제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일반 운동권 학생들이 모일 장소가 없었다. (...) 모여서 얘기를 해야 뭐를 해도 할 수 있을 것 아니냐.¹³⁾

1980년대에 한국공해문제연구소는 공해라는 개념을 통해 생태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

10) 조대엽, 앞의 책, 132쪽 참조.

11) 공해문제연구소 이전에도 비공식적인 모임이지만 초보적인 조직틀을 갖춘 환경운동단체인 『공해연구회』가 1970년대 말에 만들어졌다. 이 운동 조직에서는 환경 피해지역에 대한 조사와 자료 정리, 홍보, 반공해운동의 이념 정립 등의 활동을 하였지만 비공식 모임이었으며 직업적 활동가가 없었기에 자료정리 차원에서 머물렀다. 한국가톨릭농민회, 앞의 책, 63쪽.

12) “제2조 (목적): 본 연구소는 (...) 맑고 푸른 금수강산을 이룩하여 하느님의 나라를 세wig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공해문제연구소 정관』, 1982.

13) 2007년 10월 12일,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양재성 사무총장과 성백걸 목사가 권호경 목사를 인터뷰한 내용의 일부이다. 성백걸, 『기독교환경운동연대 25년사: 하나님, 자연, 사람, 그 창조의 숨결』(서울: 한들출판사, 2008), 33쪽.

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민주화운동의 연장선상에서 반공해운동을 펼쳤다. 당시 한국공해문제연구소에서는 환경이나 생태라는 말보다 공해라는 말을 사용하였고, 공해의 근본 원인으로 독점자본주의, 억압적 국가 그리고 분단과 같은 사회구조적인 요인들을 지목했다. 따라서 정치적 민주화를 통해서 환경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1984년 6월 5일 발표된 「반공해 선언문」¹⁴⁾에서, 한국사회의 공해문제는 민족통일과 민주주의, 그리고 기본적 인권의 확립과 함께 우리 민족이 풀어야 할 최대의 과제로 제시되었다. 이때 공해문제의 원인으로는 대재벌 위주의 대외의존적이고 반민중적 경제정책이 지적되었고, 따라서 공해 확산의 책임은 주로 정부와 대기업에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한국공해문제연구소는 이후 1985년에 온산 공해병을 여론화하는 데 성공한 이후 “앞으로 (...) 개발독재로 인한 농어민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것과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져야 연구소가 국민의 관심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자체평가하면서¹⁵⁾ 공해문제의 사회화, 피해지역주민운동, 반공해운동가 양성 교육에 주력하였다.

이처럼 한국공해문제연구소는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 성장 위주의 국가 정책에 대항하는 저항적 생태환경운동을 활발히 펼쳤으며, 대체로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설정하였다. 따라서 개개인의 변화나 세계관의 변화보다는 공해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문제를 일으킨 국가나 대기업을 상대로 사안별로 승리를 거두는 데 주력했다.

이 시기에 한국공해문제연구소의 활동은 몇몇 기독교 성직자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반공해운동과 기독교와의 연관성은 개별적인 차원에 머물렀으며, 운동에서 기독교적인 특수성을 드러내거나 개신교 교단의 공식적인 움직임을 끌어내지는 못했다.¹⁶⁾

한편, 가톨릭농민회의 저항적 농민운동의 흐름은 1980년대에도 이어졌다. 1980년 민주농정실현을 위한 전국농민대회 개최, 1982년 농지세철폐운동, 1983년 조합장 직선제를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 1985년 소 값 피해보상운동, 1986년 미국농축산물수입반대운동, 1987년 농가부채해결운동, 남북 종자 및 농민교류운동, 1988년 고추제값받기운동 및 수세폐지운동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가톨릭농민회는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농민해방과 민족통일’을 운동 방향으로 삼고, 농촌사회의 민주화와 공동체적 삶의 실천을 구체적인 목표로 삼아 운동을 전개해나갔다.¹⁷⁾ 이와 같이 가톨릭농민회의 활동은 땅과 생명활동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농업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농민권익수호와 민주화운동을 중심으로 펼쳐졌다.

14)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웹사이트. <http://greenchrist.org>.

15) 한국공해문제연구소, 「임시이사회록」(한국공해문제연구소, 1985. 12. 13), 2쪽. (성백길, 앞의 책, 77쪽에서 재인용).

16) 물론 교회와의 관련성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84년 5월 25일에, 한국공해문제연구소는 한국교회의 환경주일(매해 6월 첫 일요일)을 설정하고 발표하고, 환경주일 설교자료집 1000부를 만들어서 각 교회에 우송하기도 하였다. 위의 책, 97쪽. 그러나 교단 차원에서 그러한 움직임이 정착되지는 못했다.

17) 정호경, 앞의 글, 238-239쪽.

그런데 개신교나 천주교에 비해, 이 시기 불교계에서는 눈에 띄는 생태 NGO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 까닭은 현대 한국 불교계의 가장 치욕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는 ‘10.27 법난’¹⁸⁾ 이후 종단 조직을 재구성하고 정비하는 데 불교계의 노력이 집중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사회 참여적인 청년 승려와 재가 불자들은 불교의 자주화, 사회 민주화, 그리고 종단 내부의 자율적 개혁을 요구하게 되었다. 특히 1985년 5월에 출범한 민중불교운동연합은 국가권력으로부터 불교의 자주화를, 그리고 사회의 민주화를 추구하였다. 1986년 6월에는 청년 승려들을 중심으로 ‘불교정토구현승가회’가 창립되었고 종단의 개혁과 사회의 민주화 운동을 벌였다.

3. 기회구조의 확산과 운동의 전문화: 1987년~1999년

1980년대에 저항적 환경운동의 방향으로 진행되어 오던 종교계 생태 NGO의 활동 방향은 1987년 6월 항쟁과 사회주의 몰락을 경험하면서 큰 방향의 전환을 이루게 된다. 우선 6월 항쟁 이후 국가의 억압이 점차 약해지고 정치적 기회구조가 대폭 개방되면서 시민 환경운동단체의 제도화가 활발히 이루어졌다.¹⁹⁾ 또한 사회주의 동구권의 몰락 이후 대안적 이념을 찾던 많은 사상가, 지식인들을 통해 생태주의 이념이 확산되면서, 인간을 중심으로 세계를 일종의 기계처럼 바라보는 기존의 세계관을 전환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퍼져나갔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생태 NGO도 활성화되게 되었다. 나아가 1992년 2월 리우 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지구정상회담은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을 세계 각국에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리우 회의는 생태문제를 국내의 환경오염 문제 차원을 넘어서서 전지구적인 생태 위기로 명확히 인식하게 해 주었으며, 국내에서도 생태 NGO의 활발한 활동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국내 생태 NGO의 활동 방향도 크게 바뀌었다. 한국공해문제연구소, 그리고 조금 뒤에 생겨난 공해추방운동연합은 공해문제에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따로 있으며, 가해자는 ‘독점 재벌, 군사독재, 외세 그리고 그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지식인’²⁰⁾이라는 저항적 환경주의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이러한 입장은 쇠퇴하였고 1980년대의 공해추방운동연합은 1990년대 들어서 시민운동을 표방한 환경운동연합으로 새롭게 탄생하였다. 환경운동연합은 그 전신인 공해추방운동연합과는 달리 ‘모두가

18) 경신대법난(庚申大法難)으로도 불리는 ‘10.27 법난’은 1980년 10월 27일 새벽에 조계종 총무원 이하 전국의 주요 사찰에 계엄군이 진입해서 송월주 총무원장 등 153명을 연행하고 사찰의 각종 서류 등을 압류해간 사건을 일컫는다. 동국대학교 석림동문화 편찬, 『한국불교현대사』(서울: 시공사, 1997), 57쪽. 이 외에도, 대한불교조계종공식홈페이지(<http://www.buddhism.or.kr>)와 유웅오, 『10.27 법난의 진실』(서울: 화남출판사, 2005) 등을 참조.

19) 구도완, 『한국 환경운동: 급속한 성장과 제도화, 『사상』겨울호(서울: 사회과학원, 2003), 60쪽.

20) 위의 글, 186쪽.

가해자이며 피해자'라는 논리를 전개하였으며, 환경운동연합의 각종 활동에서는 이제 '민중'이라는 용어가 사라지고 '시민'이라는 용어가 전면에 부상하게 되었다.²¹⁾ 뿐만 아니라 배달환경연구소²²⁾를 비롯한 수많은 민간 환경운동단체들이 1990년대에 설립되었다.

종교계 생태 NGO의 성격도 변화를 겪게 되었다. 1987년 6월항쟁 이후 시민단체의 설립이 어느 정도 인정되면서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공개적으로 설립되었고, 이제 더 이상 굳이 종교적 명칭 아래 보호받을 필요가 없어졌다. 또한 각 부문별로 전문시민운동 NGO들이 설립되면서 굳이 종교계 NGO가 인권운동, 생태환경운동, 농민운동 분야를 포괄할 필요가 있는지 정체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특히 1987년 이전까지 한국에서 활동적인 전문 생태운동조직은 10개 미만이었고, 전국적인 조직을 가진 단체는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1987년 이후 사회운동이 전반적으로 성장하면서 생태운동 NGO도 늘어나기 시작하였고, 1991년 낙동강 폐놀오염사고를 계기로 크게 성장하게 되었던 것이다.²³⁾

특히 1990년대에는 개신교와 천주교의 경우 종단 중앙조직의 공식적인 담론에서도 생태 관련 언급이 급증하기 시작했는데, 그 계기는 1990년 세계교회협의회 주최로 서울에서 열린 JPIC(Justice, Peace and Integrity of Creation) 세계대회이다. 이러한 개신교와 천주교 종단 분위기의 변화는 기존 종교계 생태 NGO의 방향 전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우선 개신교의 주요 생태 NGO인 한국공해문제연구소를 살펴보면, 연구소의 정체성은 1987년 이후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1988년 2월 23일, 한국공해문제연구소의 실행이사회에서는 변화하는 국면에서 연구소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당시 새롭게 모색한 진로는 처음에는 연구소의 활동 범위를 '반핵'까지 확장하는 것이었다. 1988년 4월 10일에 연구소의 명칭을 '한국반핵반공해평화연구소'로 개칭하였다. 같은 해 5월 16일, 연구소 이전과 소장 이취임 기념식에서 장기천 이사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은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몸이다. (...)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는 언제나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며 그 파괴 세력과의 싸움에 나서야 한다. (...) 그런 뜻에서 새로 옷을 갈아입고 출발하는 '반핵반공해평화연구소'야말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전위대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의 변신이라고 생각한다.²⁴⁾

21) 환경운동연합은 출범 당시 환경위기의 최대 원인으로 “자연의 상태를 무시한 성장위주의 개발정책과 기업의 이윤추구 활동” 뿐만 아니라 “국민 일반의 소비적 생활태도”를 지적하였다.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강령과 활동계획』, 『정세연구』 통권 제45호 (서울: 민족민주운동연구소, 1993), 234쪽.

22) 대전대 환경공학과의 장원 교수가 1991년 6월 창립하였고, 나중에 녹색연합으로 개칭되었다. 이 단체의 주요 활동은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활동 및 자연환경 보전운동이다. 양중희 외, 앞의 책, 560쪽.

23) 위의 책, 553쪽.

24) 장기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 『공해연구』 제18호(서울: 한국공해문제연구소, 1989), 6-7쪽. 성백걸, 앞의 책, 121쪽에서 재인용.

이러한 문제의식은 연구소의 이사장과 소장을 역임한 목사 최완택이 『기독교사상』에 기고한 글에서 더욱 두드러진다.²⁵⁾ 그는 공해 문제를 푸는 진정한 열쇠는 이 땅의 민주화와 통일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서 반공해운동의 출발점은 민주화운동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반공해운동의 관심사는 사회정의의 확장임을 읽을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반핵반공해평화연구소는 1990년에 『핵과 공해』 소식지를 발행하였고, 미군기지 반대 투쟁 관련 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1980년대의 저항적 환경운동의 방향을 이어가면서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1991년 1월 21일, 6대 소장으로 인명진 목사가 취임하면서 연구소의 방향은 무엇보다 교회운동, 그리고 보다 순수한 환경운동을 지향하는 것으로 급선회하였다.²⁶⁾ 예컨대, 1990년까지는 각계 인사와 천주교, 불교의 성직자가 연구소 이사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후에는 개신교 목회자와 기독교청년의료인회 회원으로 이사가 구성되어야 하며, 가급적 모든 구성원은 기독교인일 것이 기대되었다.²⁷⁾ 즉, 반공해나 반핵 등의 이슈를 주로 다루는 저항적 생태환경운동보다는, 보다 포괄적인 ‘환경’을 내세우는 동시에 개신교와의 연관성을 강조하면서 한국 교회의 환경운동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쪽으로 연구소의 주요 방향을 설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1992년 1월, 연구소의 명칭을 ‘한국교회환경연구소’로 개칭하고 본격적인 개신교 생태 NGO로 활동하게 되었다. 이후 한국교회환경연구소는 한국교회협의회 산하 환경위원회 및 각 교단 환경조직과의 협력을 도모하면서 환경주일에배자료를 발간하고, 한국교회환경학교 활동, 각종 교육자료 제작 등, 교단 내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활동에 주력하였다.

1993년 김영락 목사가 한국교회환경연구소의 7대 소장으로 선출되면서 연구소의 활동은 기독교 영성과 생태환경운동을 접목하는 방향으로 더욱 집중되었다. 이후 연구소에서는 1994년 12월부터 신앙을 바탕으로 한 생태운동인 ‘생명길 좁은문 운동’을 펼쳤다.²⁸⁾ 연구소는 1997년 3월에 기독교환경운동연대로 개칭하면서 개신교의 생태문제를 전담하는 NGO로서 정체성을 확고히 하게 되었다.²⁹⁾

한편, 천주교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우선, 1980년대까지 농민운동의 대표적인 조직체

25) 최완택, 『한국의 공해 문제와 반공해 운동』, 『기독교사상』 1월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9), 77-78쪽.

26) 성백결, 앞의 책, 129쪽.

27) 한국반핵반공해평화연구소, 『연구소의 위상 설정을 위해』, 1991. 위의 책, 132쪽에서 재인용.

28) 이 운동은 “환경운동을 신앙운동으로 보고, 환경문제의 해결은 근검절약, 경건한 신앙생활, 이웃과의 나눔을 바탕으로 가능하다는 뜻으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김영락, 『환경보전을 위한 교회의 역할』, 1996, 1-2쪽. 위의 책, 181쪽에서 재인용.

29) 정관을 통해 기독교환경운동연대의 설립 목적과 주요 활동 방향을 엿볼 수 있다. “제2조(목적): 환경문제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교회와 사회에 이식시키고, 기독교환경운동을 확산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보전하는 데 있다.”; “제4조 (사업): “1. 환경운동을 위한 조사연구와 기독교적 대안개발, 2. 교회와 일반인을 위한 환경교육, 3. 교회의 창조질서 보전활동 지원, 4. 핵과 공해의 피해지역 주민대책 활동 및 피해자 조사”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정관』, 1997. 3. 18.)

였던 가톨릭농민회는 1990년대에 활동 방향을 크게 전환하였다. 직접적 원인으로는 1989년에 과도기적 조직인 전국농민운동연합이 결성되고³⁰⁾ 마침내 1990년 전국농민운동조직인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출범하는 등, 농민운동을 전담하는 단체가 생겨나면서 굳이 가톨릭농민회의 이름 아래 농민이 집결할 필요성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가톨릭농민회는 1989년에 새운동전국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생명운동과 공동체운동을 포괄하는 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였다.³¹⁾ 1990년 2월에 열린 제20차 대의원 대회에서는 「생명과 해방의 공동체를 건설하자!」는 선언문을 발표하면서 가톨릭농민회가 생명운동, 공동체운동으로 나아갈 것을 선언하였다. 특징적인 것은 가톨릭농민회가 1990년 당시 기존의 ‘전국-도-군-분회’로 이루어진 조직구성을 ‘전국-교구-본당-마을생활공동체’로 전환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농민운동을 전담하는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생기면서, 가톨릭농민회가 천주교 부문운동으로서의 성격을 확립하기 위해 천주교회의 조직적 특성을 살려서 종교적 조직체로서의 외양을 갖추어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천주교 교단 역시 이러한 변화를 환영하면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였다.³²⁾

물론 가톨릭농민회의 우리농촌살리기운동에서는 여전히 민주화운동, 농민권리수호운동의 경향성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오늘날 우리 농민은 민족의 실체요 사회진보의 주체로서 민주화와 민족통일을 이룩해야 할 역사적, 민족적, 생존적 과제를 짊어지고 있다”는 「한국가톨릭농민회 헌장」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³³⁾

한편, 지역에서도 천주교 생태 NGO가 출현하기 시작했는데, 대표적으로 인천지역에서는 1993년 창립한 가톨릭환경연구소가 폐지와 공병, 우유팩 등을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활동과, 굴업도 핵폐기장 건설반대운동, 영흥도 화력발전소 건설반대운동 등 지역사회의 저항적 생태운동에 동참하는 등의 활동을 펼쳤다.³⁴⁾

불교의 경우, 1980년대에 일부 진보적인 불교인들은 한편으로는 종단의 개혁을 요구했고 다른 한 편으로는 사회민주화를 요구하면서 민중불교운동을 펼쳐나갔지만,³⁵⁾ 1990년대에 이러한 운동단체들은 약화되거나 해체되었고,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등 시민운동의 성격을 지닌 단체들이 생겨나고 있었다. 그러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불교계에서는 생태문제에 대한 관심이 다방면에서 일어났고 불교 생태운동이 여러 각도에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30) 한국가톨릭농민회, 앞의 책, 156-157쪽.

31) 위의 책, 159-160쪽.

32) 위의 책, 165쪽, 각주 79.

33) 위의 책, 605쪽.

34) 위의 책, 70-73쪽.

35) 민중불교운동연합이 1985년 창립되어서 민중해방과 조국통일, 불교의 자주화와 민주화를 위해 활동하면서 해고노동자 지원 등 민중운동과 불교의 민주적 개혁 운동을 벌였고, 1986년에는 불교정토구현승가회가 창립되어 불교탄압중지를 요구하며 저항적 불교운동을 펼쳤다. 동국대학교 석림동문화 편찬, 앞의 책, 437-449쪽.

1990년대의 대표적인 불교계 생태 NGO로는 정도회 산하 불교환경교육원이 있다. 그 전신인 한국불교사회교육원은 1988년에 출범하였지만, 당시 교육원의 활동 방향은 불교계 민중운동의 연장선상에 있었다.³⁶⁾ ‘생태’에 대한 문제의식은 1990년 사회주의권의 몰락 이후 대안적 사회운동의 방향을 고민하면서 비로소 생겨나게 되었고, 마침내 1991년 9월, 한국불교환경교육원이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한국불교환경교육원은 1980년대의 반공해운동처럼 사안별로 저항적 환경운동을 펼치기보다는 생태주의적 문명의 전환을 목표로 하되 불교의 가르침을 토대로 삼고 불교적인 대안적 생태주의 운동을 전개하고자 하였으며, 명칭에서 드러나듯이 대안적인 생태주의적 교육에 주력하였다.³⁷⁾ 특히, 불교환경교육원에서는 가치관과 생활양식의 생태주의적 변화를 도모하면서, 이를 위해 실천적으로 불교의 가르침과 수행 경험을 적극 활용하였다.

한편, 1990년대에는 불교계 전반에 걸쳐 사찰환경수호운동이 광범위하게 전개되었는데, 이는 1995년부터 실시된 지방자치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이 투표에 의해 선출되고 지방자치제가 본격화되면서, 각 지역자치단체들은 다음 선거에서 지역민의 더 많은 표를 얻기 위해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각종 개발사업을 무분별하게 벌여나갔다. 그리고 주로 각 지역의 산이나 숲에 위치한 사찰들은 환경 파괴의 위협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찰 주변의 개발사업은 생태문제에 대한 불교 승려들과 종단의 문제의식을 폭넓게 확산시킨 계기가 되었다.

1995년 6월 5일 환경의 날에는 조계사에서 불교계 NGO들이 처음으로 환경을 주제로 함께 모여 제1회 청정국토한마당 행사를 벌였다. 한국불교환경교육원, 공해추방불교인모임, 경불련, 맑고향기롭게 및 불교자원봉사연합회, 불교어머니회 연합 등 각종 불교계 NGO들이 참석했는데, 이 행사를 계기로 불교 내에서 생태운동의 분위기가 본격적으로 조성되었다.³⁸⁾ 1995년 하반기부터 대대적인 지역개발과 국립공원 개발이 착수되었고 이에 대응하는 불교계의 대규모 반대집회가 열렸다. 1995년 하반기부터 우리는선우, 한국불교 재가회의, 한국불교환경교육원,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등이 고속전철 경주통과 반대운동을 펼쳤다.

이러한 1990년대의 사찰환경수호운동은 두 가지 차원을 지니고 있었다. 첫째는, 사찰 주변의 난개발 및 환경훼손을 막으려는 차원이고, 둘째는 지자체의 사찰환경훼손을 반대하

36) 초기에 불교사회교육원은 민중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사회교육을 통한 의식화를 목표로 청년 불자들 및 일반 불자들에 대한 교육운동을 전개했다. 대화문화아카데미, 『종교사회단체들의 환경활동 활성화에 관한 연구』(서울: 환경부, 2001), 120쪽.

37) 불교사회교육원의 주요 구성원들은 1990년 무렵 현대사회의 생산력주의에 대해 문제제기 하면서 좋은 생산력, 좋은 생산양식(협동조합), 사회변화의 핵심은 구조 뿐 아니라 인간의 변화이기에 좋은 인간, 이 내용들을 잘 실천하기 위한 좋은 방법 등 네 과제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위의 책, 120쪽.

38) 같은 해 9월 15일 직지사에서 ‘푸른생명다솜회’라는 환경단체를 창립하는 등, 청정국토한마당 행사로 불교 내부에 환경운동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각 기관이나 단체들이 환경관련 기구를 창립하기도 하였다. 대화문화아카데미, 앞의 책, 117쪽.

는 동시에 사찰환경을 파괴하게 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반대하고, 이러한 총체적인 사찰 환경파괴가 불교 탄압이라고 보면서 교권수호운동의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차원에서의 운동은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이어졌다.

4. 교육적 기능의 강화와 상호 연대: ~2000년대

2000년대에는 한국사회에서 생태환경관련 NGO들이 매우 많아지고 또 에너지대안센터 등 다양한 생태환경 이슈들로 전문화된 단체들이 생겨났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종교계 생태 NGO들은 종단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이슈들로 집중화(혹은 축소)하면서, 동시에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종교계 생태 NGO들이 서로 연대하여 활동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개신교계의 대표적인 생태 NGO인 기독교환경운동연대는 2000년대에 주요 사업으로 교회와 교인들을 대상으로 쓰레기줄이기 운동, 내복입기 운동, 녹색교회운동, 생명밥상운동을 펼쳐나갔고, 교회가 생태환경운동에 동참할 필요성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교육하는데 주력하였다. 2005년 2월 3일 취임한 양재성 사무총장은 “창조질서보전운동인 환경운동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사명입니다. 이 시대 상황에서 환경운동을 하지 않는 교회는 진정한 교회로 보기 어려우며 이는 절체절명의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직무유기입니다.”³⁹⁾라고 말하면서, 개신교계가 생태운동에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동시에 동강댐 건설 저지운동(물사랑 운동), 새만금 살리기 운동 등 종교연합 생태환경운동에서 개신교를 대표하는 창구 역할을 해왔다.

천주교의 경우, 전국환경사제모임은 2001년 11월에 연대의 필요성을 공론화하였고, 2002년 1월 14일에는 천주교환경사목 전국연대망 구성을 목표로 하는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2월 18일에 천주교환경연대 결성을 위한 1차 준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후 5차에 걸친 준비 모임 끝에 그동안 교구별로 활동하던 단계를 넘어서서 각 교구의 활동들을 모아 정리하고 교구별 활동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네트워크 형성을 일차적인 목표로 2002년 6월 3일 환경의 날을 맞아 천주교환경연대를 창립하게 되었다.⁴⁰⁾

천주교환경연대의 설립 배경에는, 일반 사회 환경단체의 운동과 차별성을 가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가장 크게 작용하였다. 그리고 천주교환경연대는 “하느님과 세상을, 자연과 인간을 분리하는 이원적 신앙관을 극복함으로써, 모든 피조물들과의 조화로운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이루며, 삶 속으로 스며드는 생태영성의 진작에 전력함으로써 천주교 환경운동의 정체성을 확립”⁴¹⁾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천주교환경연대 제1차

39) 양재성,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취임사』, 2005. 2. 3. 성백결, 앞의 책, 258쪽에서 재인용.

40) 『천주교창조보전전국모임 웹진 무지개』, 2006. 6.

41) 천주교환경연대, 『대림절묵상자료집－하느님의 선물, 에너지: 그리스도인의 눈으로 바라본 에너지』(서

정기총회에서도 천주교 생태운동의 차별성은 창조영성과 생태영성을 진작시키는 일에 매진하는 데서 나오는 것임을 제안하였다.⁴²⁾ 이후 천주교환경연대는 기존의 절기 묵상이나 전례, 피정 활동을 생태적으로 전유한 생태묵상, 생태전례, 생태피정 자료집을 발간하면서, 기존의 영성교육에 생태적인 시각을 불어넣으려고 시도해왔다.⁴³⁾ 이후 천주교환경연대는 2006년 2월에 “하느님의 창조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지키면서 창조의 완성으로서 구원을 생태영성운동에 통합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히기 위해 천주교창조보전전국모임으로 개칭하였다.

불교계에서 2000년대에 주목할 만한 생태 NGO로는 인드라마생명공동체와 불교환경연대가 있다. 1999년 9월 창립된 대표적인 불교계 생태 NGO인 인드라마생명공동체는 농민운동, 귀농운동을 전개하면서도 이전 가톨릭농민회의 활동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인드라마생명공동체는 불교사상을 바탕으로 깔고 개개인의 세계관의 전환과 나아가 대안문명의 수립을 목표로 하면서도, 특히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개인의 변화와 대안문명의 창출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대안적 교육 활동을 펼치면서, 궁극적으로는 생태농업을 위한 귀농운동을 확산시키고자 한다.

또한, 2000년대에는 사찰이 주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비판적으로 고려하는 움직임이 불교 생태운동의 주요한 흐름으로 부상하게 된다. 방어적이고 저항적인 현실문제 대응 차원의 사찰환경수호운동을 넘어서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불교환경운동 내부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불교환경운동의 새로운 전환을 꾀하는 이러한 움직임은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나타났다. 즉, 난개발로 인한 사찰 환경문제에 대한 불교내의 대응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고, 사찰 자체가 역으로 환경에 주는 피해의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불교 생태운동이 사찰환경수호에서 더 나아가 산을 지키는 운동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⁴⁴⁾ 좀 더 포괄적이고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불교환경운동단체를 설립하기 위해 조계종 중앙신도회,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대한불교청년회, 인드라마생명공동체, 불교환경교육원 등 불교 단체들이 공동으로 준비기간을 거쳐서 2001년 9월 6일 불교환경연대가 창립되었다. 불교환경연대는 조계종 중앙조직과는 연관이 없는 별도의 조직이며, 창립 이후 종단 내/외부의 생태환경 파괴적 활동을 감시하고 비판할 뿐 아니라, 생태문제에 대한 불

출: 천주교환경연대, 2004), 90쪽.

42) 이동훈, 『가톨릭 환경운동의 방향과 과제』, 『천주교환경연대 제1차 정기총회 자료집』(서울: 천주교환경연대, 2003), 48쪽.

43) 천주교환경연대, 『사순, 부활 묵상자료집-묵마른 하느님』(서울: 천주교환경연대, 2003); 『대림절묵상자료집-하느님의 선물, 에너지: 그리스도인의 눈으로 바라본 에너지』; 『‘보시니 좋았다’-창조물을 존중하고, 보살피기 위한 열가지 계명』(서울: 천주교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 우리농촌 살리기운동본부, 2004) 등 참조.

44) 유정길, 『불교의 생명운동과 환경운동의 새로운 전개를 위하여』, 『새로운 불교환경단체 결성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2001, 7쪽. 유정길은 여기서 교구본말사 및 사찰의 스님들, 나아가 신도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재가보다 승가의 책임 있는 주체가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교적 시각을 홍보하고 교육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불교환경연대에서는 북한산 관통도로 건설저지운동,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관통 백지화운동⁴⁵⁾ 등 사찰이 직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각종 대형 국책사업과 관련해서 반대운동을 주도적으로 펼쳐왔으며, 또한 새만금 간척사업 반대운동⁴⁶⁾처럼 사찰수행환경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지만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동시에 불교계 내부의 반생태적인 측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푸른사찰만들기 운동과 다양한 교육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여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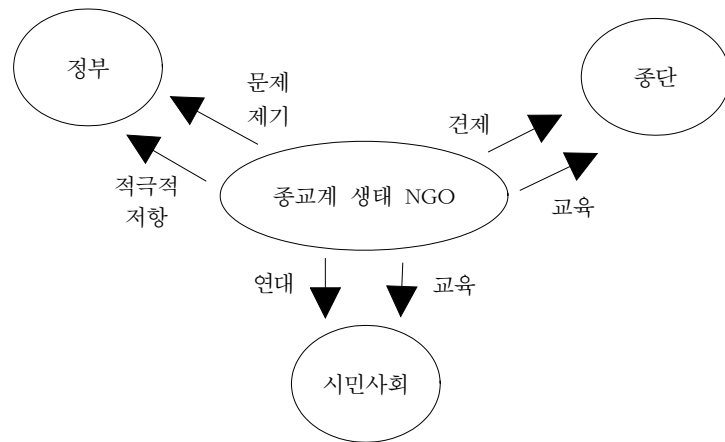
그 외에도, 불교계 생태 NGO 가운데 정토회는 1990년대에 시작한 쓰레기제로운동과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지속하면서, 특히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빈그릇운동이란 이름으로 사회에 확산시키고 있다.

Ⅲ. 종교계 생태 NGO의 성격

앞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사회에서 종교계 생태 NGO들은 ‘종교’의 이름 아래 공공의 생태적 가치를 추구해 왔다.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종교계 생태 NGO들은 다른 일반적인 생태 NGO들과 마찬가지로 국가 정책에 대해서도 발언해왔을 뿐 아니라, 거기에 더해 종교계 내부의 비생태적인 부분을 견제하고 교육하는 역할을 해왔다. 또한 시민사회에 대해서도 시민의 생태교육을 담당하면서 일반 생태 NGO와 연대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이러한 종교계 생태 NGO의 활동은 주요 대상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질 수 있으며, 이를 간단하게 그림으로 나타내어 보면 아래와 같다.

45) 2003년 2월 13일에는 경부고속철도 금정산 천성산 관통 백지화 및 대안노선결정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주최하였고, 2004년 6월부터 천성산 살리기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46) 2003년 3월 28일부터 5월 31일까지 부안 해창갯벌에서 서울 광화문까지 진행된 새만금 갯벌살리기 삼보일배에는 불교환경연대의 대표인 수경이 참여하였다.



〈그림 1〉 종교계 생태 NGO의 활동 영역

종교계 생태 NGO들은 대체로 매우 많은 이슈들을 다루어왔으며, 국가나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개발사업 반대운동, 교인 혹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생활 개선운동, 종단내부개선운동 등을 펼쳐왔다. 아래에서는 종교계 생태 NGO의 정치적 성격을 특히 종단과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종교계 생태 NGO의 사회참여 방식(대정부활동)

정부에 대한 종교계 생태 NGO의 활동은 생태문제와 관련한 제도적, 절차적 합리성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다. 생태환경은 개발사업에 의해 순식간에 파괴될 수 있지만, 그 회복을 위해서는 매우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모든 종류의 개발사업은 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생태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면밀히 조사하고 나서 생태환경의 파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발이 진행되어야 한다. 정부가 세우는 각종 정책들은 생태환경에 파급되는 직간접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막대한 자금과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은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매우 심대하다. 따라서 사업을 집행하기 전에 국민적인 합의를 끌어낼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더더욱 치밀한 환경영향평가가 요구되는 등, 집행 과정에서 절차적 합리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대규모 국책사업들은 국민적 합의나 환경영향평가를 무시한 채, 절차적 합리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막무가내로 착수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국내의 생태 NGO들은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반대운동을 벌여왔다. 종교계의 생태 NGO에서도 생태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정책이나 기조에 대하여, 나아가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저항하는 운동을 펼쳐왔다.

종교계 생태 NGO들이 대정부 정치활동을 펼치는 가운데 주목할 만한 세 가지 방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정부와의 관계에서 상황과 사안에 따라 직접적인 반대운동을 통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다. 직접적인 반대운동은 강경한 시위나 성명서, 각종 퍼포먼스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이루어져 왔으며, 종교계 생태 NGO들이 주도하는 경우도 있고 참여하는 경우도 있었다. 1970년대 가톨릭농민회나 1980년대 한국공해문제연구소에서는 민주화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정부의 정책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직접적인 반대운동을 펼쳐나갔다. 최근에는 동강댐 건설, 새만금 개발 사업,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구간공사, 대운하사업 등 각종 국책사업에 대한 반대운동에 종교계 생태 NGO들이 활발하게 참여해왔다.

예컨대 불교환경연대는 북한산 관통도로 건설을 반대하면서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하였다. 불교환경연대의 이름으로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였을 뿐 아니라, 2001년 11월 20일에는 북한산 관통 도로 개설을 반대하면서 북한산 송추계곡에 철마선원이라는 이름으로 농성장을 설치하여 운영을 시작하였고, 2002년 6월 26일에는 북한산살리기 범불교도대회를 조계사에서 개최하고 같은 해 10월에는 북한산 관통도로 반대 100만인 서명운동을 추진하면서 자료집을 발간하였다. 2003년 3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노무현 대통령의 북한산 관통도로 백지화 공약이행을 촉구하는 릴레이 단식정진 활동을 펼치기도 하였다.

이처럼 성명서나 선언문은 주요 사안이 있을 때마다 종교계 생태 NGO들이 정부의 정책에 대한 반대를 가장 일차적으로, 즉각적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종종 사용되어 왔다. 그 외에도 농성, 거리행진, 서명운동, 단식투쟁 등의 방법이 직접적인 반대운동의 방법으로 사용되어 왔다. 주목할 것은, 종교계 생태 NGO에서 벌이는 직접적인 반대운동의 구체적인 방식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점차 차이를 나타낸다는 점이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종교계 생태 NGO라고 해도 운동의 방식에서 특별히 종교적인 색채는 나타나지 않았고, 일반적인 사회운동의 방법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점차 반대운동의 방식에서도 종교적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순례나 108배, 기도회 등을 시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그 사례이다.

종교계 생태 NGO의 대정부활동에서 나타나는 두 번째 주요 방식은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조사활동과 홍보, 시민 교육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정치적인 이슈를 형성하는 것이다. 종교계 생태 NGO에서 이슈의 발굴과 개발을 통한 정치참여는 1970년대와 1980년대에 특히 활발하게 일어났다. 온산병과 공해의 연관성을 여론화한 것, 공해문제를 민주화 문제와 연관시킨 것, 농협의 비합리적인 수매과정 등을 밝혀내거나, 우리쌀살리기 등을 이슈화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아직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활성화되기 이전인 1987년에는 소위 최루탄 자료집으로 불리는 『피눈물 흘리는 민주주의』 8,000부를 발행하여, 최루탄의 역사, 부작용, 최루탄 소비와 민중탄압의 관계 등을 밝히면서 이슈화하기도 하였다.⁴⁷⁾

47) 성백길, 앞의 책, 108쪽.

그러나 최근에는 전문 생태 NGO들이 출현하면서, 종교계 생태 NGO들이 직접 생태환경 관련 이슈들을 개발하거나 발굴하는 사례는 많지 않으며, 대신 전문 생태 NGO들이 발굴한 생태 관련 자료들을 각종 생태캠프나 책자, 프로그램들을 통해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교육하는 활동을 주로 하고 있다.

세 번째는 최근에 더욱 두드러지는 현상으로서, 특히 종교계 생태 NGO들이 서로 연대해서 직접적인 반대운동에 힘을 모으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 방향은 특히 대형 국책사업 반대운동을 위한 종교계 생태 NGO들의 활동에서 주로 나타난다. 이러한 연합활동으로 국내에서 일반인에게 가장 널리 각인된 것은 새만금 개발사업을 반대하면서 네 종단 생태 NGO들이 연합해서 2003년 3월-5월에 펼친, 해창갯벌에서 서울시청 앞까지의 삼보일배이다. 최근에는 이명박 정부의 대운하사업에 반대하면서 종교계 생태 NGO들이 연합해서 생명의 강 살리기 순례를 진행한 바 있다.

2. 종교계 생태 NGO와 종단 사이의 역학

종교계 생태 NGO들은 또한 일반 생태 NGO가 접근하기 어려운 종단 내부의 반생태적인 측면을 견제하고 생태주의적 시각에서 신도들을 교육하는 등의 활동을 해왔다. 종교계 생태 NGO와 종단 중앙 조직과의 관계는 견제, 지원, 협력 등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나타난다.

첫째로, 종교계 생태 NGO는 종단의 반생태적인 측면을 견제하면서 종단의 개혁을 촉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종교계 생태 NGO는 종단 중앙조직으로부터 경제적으로나 조직적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종교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종교계 생태 NGO가 종단의 반생태적인 부분을 비판하는 것은 종단의 성찰적인 자기반성과 자기쇄신과 연관되는 측면이 있다.

불교의 경우, 단위 조직을 사찰로 볼 때 단위 조직의 조직화의 수준은 다른 종교들에 비해 매우 미약하며, 종단 수준에서 보더라도 대한불교 조계종의 중앙 조직은 천주교나 개신교와 비교해서 조직의 규모나 활동 정도가 미약하다. 이처럼 불교는 상대적으로 종단 중앙의 체계가 잘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주로 외곽 조직인 생태운동 NGO들을 중심으로 생태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불교계의 사회운동 조직은 뚜렷이 내세울 것이 거의 없고 종교계의 운동 조직은 주로 개신교와 천주교를 배경으로 이루어졌다는 1995년 무렵의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⁴⁸⁾ 2000년대에 불교계 생태 NGO의 약진은 두드러진 특징을 이룬다. 이러한 불교계 생태 NGO들은 생태운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할 뿐 아니라 불교 자기정화를 모색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예컨대 인드라망생명공동

48) 노치준, 『한국의 교회조직』(서울: 민영사, 1995), 128-129쪽.

체는 1990년에 ‘승풍진작, 올바른 수행자상 정립, 불교사상에 입각한 사회활동’을 목표로 결성된 조계종 비구결사체인 선우도량의 ‘불교사상성에 입각한 불교개혁과 사회개혁의 병행’ 노선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불교 생태 NGO들에서는 사찰환경 수호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불교의 각종 활동들, 불사들이 역으로 환경을 파괴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집단이기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는 반성적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이러한 자기반성은 특히 골프장 건설과 도로설치에 반대하면서도 오히려 대형불상을 기공하고 환경파괴불사를 감행하려는 해인사의 사례를 경험하면서 두드러졌다. 불교환경연대는 개발문제로 각 사찰들이 분쟁을 겪을 때 불교계를 대표하여 난개발과 환경훼손에 대응하기 위해 창립된 단체이지만,⁴⁹⁾ 창립 때부터 단지 외부로부터의 환경훼손만을 문제 삼는 단계를 넘어서고자 하였다.⁵⁰⁾ 따라서 사찰환경수호를 위한 각종 개발반대운동을 벌이면서도 사찰이 주변 생태계의 오염원이 되는 것을 경계하면서 주요 사찰 환경을 조사하는 사업을 펼쳐나갔다.

다른 종교계 생태 NGO들에서도 해당 종단의 종교공간이 지역사회에서 생태적 중심공간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구상하는 움직임이 나타난다. 기독교환경운동연대에서는 이를 ‘녹색교회’ 만들기로, 불교환경연대에서는 ‘푸른사찰 만들기’, ‘생태사찰 가꾸기’ 등으로, 천주교환경연대에서는 ‘녹색교회’ 혹은 ‘친환경본당공동체’ 만들기로 각각 지칭하고 있다. 이러한 각각의 운동들은 기존의 종교공간이 지니고 있는 반생태적인 측면들을 반성하면서 종교공간을 생태운동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해 왔으며, 이러한 운동 방향은 종단을 생태 환경에 적응적으로 개혁하려는 종단개혁운동과도 맥이 닿아있다.

이처럼 종교계 생태 NGO들은 종단 내부의 반생태적인 측면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활동을 해왔지만, 직접적으로 종단의 중앙조직을 비판하는 모습은 가능하면 전면에 부각시키지 않는다는 특징을 보여준다.

둘째로, 종교계 생태 NGO가 종단 중앙조직을 지원하는 모습이 종종 나타난다. 종단 중앙조직에서는 생태환경 관련 기구가 없거나, 혹 있더라도 전문적인 연구조사활동, 프로그램의 기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때 종교계 생태 NGO들은 종단 중앙조직의 요청에 따라 종단 내 환경관련 기구의 설립 및 운영에 조언을 주기도 하고, 프로그램의 기획에 참여하기도 하며, 연구조사 자료를 지원하기도 한다.

가장 일반적으로 종교계 생태 NGO들은 자기 종교의 정기의례들을 생태주의적으로 재구성한 생태의례를 개발하여 종단 중앙조직에 보급하고 있다. 예컨대 기독교환경운동연대에서는 생태영성 고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관심을 가져왔다. 나아가, 기독교

49) 『불교환경연대 규약』에서는 불교환경 수호가 불교환경연대의 중요한 활동 가운데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

50) 불교환경연대는 창립식에서 “동체대비의 큰 가르침을 우리의 좌표로 삼아 먼저 내 마음을 밝히고 국토를 청정하게 장엄하는 보살의 길로 나아간다.”는 문구를 내세웠다. 『인드라마』, 9/10호(인드라마생명공동체, 2001) 97쪽.

환경운동연대에서는 창조보전을 위한 기도운동을 비롯하여, 창조신앙 사경회, 환경주일에 배의 정착을 위한 활동 등 개신교의 의례에 생태주의적 요소를 도입하려고 노력해왔다.

또한 불교환경연대는 조계종 사회부의 '불교환경의제 21'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불교환경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종교계 생태 NGO들은 생태환경 관련 문제들에 대하여 종단 중앙조직에 자문을 해주기도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기초 연구조사사업을 펼치기도 한다.

셋째로, 종교계 생태 NGO와 종단 중앙조직의 수평적 협력 관계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협력관계는 종단의 중앙조직과 종교계 생태 NGO가 연합하여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을 비판하고 직접적인 반대운동을 함께했던 사찰환경수호운동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종단의 존립 자체에 대한 위협을 느끼지 않는 한, 이처럼 종단의 중앙조직과 종교계 생태 NGO가 연합하여 직접적인 반대운동을 펼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종단 중앙조직과 종교계 생태 NGO의 협력관계는 주로 각 종단의 생협운동에서 종종 나타난다. 종단 중앙조직에서는 종교계 생태 NGO와 연합해서 생협운동에 동참하면서, 기존 종교 공동체와 종교 조직을 활용해서 생산과 소비, 도시와 농촌, 도시와 농촌의 합리적 관계를 수립하는 것을 돕는다.

넷째로, 종교계 생태 NGO가 종단 내부에 관여하는 또 다른 측면은 종단의 신도들에 대한 생태 교육 활동이다. 종교계 생태 NGO들은 종단의 신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서 신도생활개선운동을 펼쳐왔으며, 환경통신, 캠프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도교육을 해오고 있다. 나아가 종교계 생태 NGO의 활동에서 종단 내부를 향한 교육적 기능은 점차 확산되는 동시에 다양화되고 있어서 주목할 만하다.

다섯째로, 종교계 생태 NGO는 종단 내부에서는 교단간, 종단 외부에서는 종단간 교류의 창구 역할을 해오고 있다. 예컨대 기독교환경운동연대는 한국 개신교계에서 교단별 경계를 넘어서서 교류와 협력을 도모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리고 주요 종교계 생태 NGO들은 종교환경회의와 실무자회의 등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서로 연대하고 교류함으로써 생태운동을 통한 종교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종교계 생태 NGO들은 개별 종단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생태운동을 활성화하고 생태운동을 전체 사회로 확산시키기 위해 협력할 뿐 아니라, 타종교와의 교류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종단 내부로 흡수하기도 하고 자기 종교와 연관된 생태운동 활동들을 타종교 생태운동으로 확산시키기도 하는 등, 실질적으로 종교 간의 소통과 화해, 교류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한국사회에서 종교 영역이 국가 영역에 개입하는 통로로서 특히 종교계 생태 NGO의 전개와 성격을 등장 맥락과 시기별 역할 변화, 사회참여 방식 및 종단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종단 중앙조직에 비해 NGO들은 환경의 변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사회와 종단의 구체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종교계 생태 NGO의 사회참여 활동들은 종교계도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활동한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를 형성하고 있다.

우선, 종교계 생태 NGO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종단 내부로 전달하고 시정하는 역할과 동시에 해당 종교인들이 국가의 정치에 개입하고 목소리를 내는 창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왔다. 특히 대규모 국책사업, 토목사업으로 대규모 생태환경의 파괴를 일으키는 것이 주로 정부의 정책에서 비롯되기에, 종교계 생태 NGO에서는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저항적 활동이 종종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종교계 생태 NGO들이 시민사회와 교단 내부에 대한 교육적 기능을 활발히 수행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종교계 생태 NGO들은 정부에 대한 비판과 현실적 정책 변화를 위해 저항운동을 펼쳐왔을 뿐 아니라, 신도와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생태 교육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종교계 생태 NGO들의 이러한 교육적 기능은 점점 더 다각도에서 활성화되고 있으며, 앞으로 그 추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아가 종교계 생태 NGO의 활동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NGO들이 사회적으로 문제로 제기되는 주요 생태 사건들에 상호 연대하여 대처하는 가운데 생태주의적 의식을 공유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생태운동의 방향성과 구체적인 실천 사항들에 있어서도 서로 영향을 주게 되었다는 점이다. 종교계 생태 NGO들의 활발한 연대활동은 종교 간 대화와 교류의 창구 역할을 할 뿐 아니라, 나아가 대정부 활동에서도 연대활동은 좀 더 강한 압력으로 작용하는 효과를 가져 오고 있다.

참고문헌

- 구도완, 『한국 환경운동: 급속한 성장과 제도화』, 『사상』겨울호(서울: 사회과학원, 2003).
- 노치준, 『한국의 교회조직』, 서울: 민영사. 1995.
- 대화문화아카데미, 『종교사회단체들의 환경활동 활성화에 관한 연구』, 서울: 환경부. 2001.
- 동국대학교 석림동문회 편찬, 『한국불교현대사』, 서울: 시공사. 1997.
- 박상필, 『NGO학 강의』, 서울: 아르케. 2006.
- 성백걸, 『기독교환경운동연대 25년사: 하나님, 자연, 사람, 그 창조의 숨결』, 서울: 한들출판사. 2008.
- 유응오, 『10. 27 법난의 진실』, 서울: 화남출판사. 2005.
- 유정길, 『불교의 생명운동과 환경운동의 새로운 전개를 위하여』, 『새로운 불교환경단체 결성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2001.
- 이동훈, 『가톨릭 환경운동의 방향과 과제』, 『천주교환경연대 제1차 정기총회 자료집』. 2003
- 인드라마생명공동체, 『인드라마』 9/10호(인드라마생명공동체. 2001).
- 정호경, 『한국가톨릭농민회—그 역사와 이념』, 『종교신학연구』 제1집(서울: 서강대 종교신학연구소. 1988).
- 조대엽, 『한국의 사회운동과 NGO—새로운 운동주기의 도래』, 서울: 아르케. 2007.
- 천주교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보시니 좋았다’—창조물을 존중하고, 보살피기 위한 열가지 계명』, 2004.
- 천주교환경연대, 『사순, 부활 묵상자료집—목마른 하느님』, 2003.
- 천주교환경연대, 『대림절묵상자료집—하느님의 선물, 에너지: 그리스도인의 눈으로 바라본 에너지』, 2004.
- 최완택, 『한국의 공해 문제와 반공해 운동』, 『기독교사상』 1월호(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9).
-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가톨릭농민회 30년사』(서울: 샘, 1999).
-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강령과 활동계획』, 『정세연구』 통권 제45호(서울: 민족민주운동연구소, 1993).

원고접수: 2009년 1월 8일 1차심사: 1월 22일 게재승인일: 2월 2일

연구자 소개: 유기쁨

① 전공: 종교학 / 소속: 한국종교문화연구소

② 관심영역: 생태주의와 종교, 현대종교, 종교와 여성

③ 주요논저: 〈생태주의-다시 사유하는 인간의 조건, 그리고 종교〉, 〈생태운동의 의례적 차원에 대한 이론적 고찰〉,
〈에코페미니스트 여신의례-지리산 여신축제를 중심으로〉, 〈생태주의와 종교연구: 흐름과 전망〉, “Looking for Salvation beyond a Risk-laden Reality: The Religious Nature of Korean Internet Culture”

④ E-mail: ntolose@hanmail.net

Abstract

The Development and Characteristics of the Ecological NGOs in Contemporary Korean Religions —Social Participation by Resistance and Ecological Education—

Yoo, Kibbeum

The Korea Institute for Religion and Cultur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development and characteristics of the ecological NGOs in contemporary Korean Religions. Today, the ecological NGOs in Korean religions participate in public sphere through diverse ways, checking both the government policies and the religious beliefs and activities of their own religious orders at the same time. In particular, they have participated actively in ecological movements not only by the resistant way but also by the educational way, and their educational activities have been gradually expanded. And the ecological NGOs in Korean Religions play important roles in communication between civil society and their religious orders. Also, they fill the role of windows for religious people to participate in national politics.

Key words : Ecological NGOs in Religions, religion and politics, eco-spirituality, civil society and religion, ecological education